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복합 문화 랜드마크 조성”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 ‘5+1’ 해법 제시 지산IC 진출로 폐쇄·어등산 레저파크 조성 검토 복합쇼핑몰 유치 7~8월 제안서 접수 연말 사업자 선정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복합 문화 랜드마크를 조성하도록 제안했다. 또 어등산 관광단지에는 레저 파크 G 랜드(가칭) 등 정부 사업 유치를 힘쓰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지산 나들목(IC)은 폐쇄를 포함해 원점 검토하도록 했다.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광주 시대 준비위원회’는 7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그동안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위원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에 ‘밀린 속제’로 표현한 ‘5+1’ 광주 현안 검토 내용도 설명했다.

해당 현안은 ▲지산IC 진출로 폐쇄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광주군 공항 이전 사업(+1)이다.

위원회는 이날 통상의 도로와 달리 왼쪽 진출 방식으로 설계돼 안전성이 우려되는 지산IC에 대해 이달 중 ‘교통사고 발생 및 비용 편익 예측 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공론화를 거쳐 10월 안에 개통 여부를 결정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현장 실사, 자문 위원회와 인수위원회 회의 결과 보완 시설을 설치하

라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 폐쇄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위원회 활동 보고서 전달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도 조사 용역이 폐쇄를 전제로 한 절차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시민들의 통행료로 만들어진 지산IC 진출로 사업에 투입된 77억원의 사업비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 셈이다. 일부에선 당시 오른쪽에서 왼쪽 진출로로 바뀌는 과정에 개인한 담당 간부 등을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침수 등 안전성 우려와 주변 상권 침체 전망이 나온 백운광장 지하차도는 안전 대책 등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계속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지난 6일 현대백화점그룹의 복합문화물 ‘더현대’ 건립 추진 발표로 관심이 커진 전방·일신방직 부지에는 챔피언스필드(야구장), 광주전 등 주변 도시디자인과 연계한 복합문화 랜드마크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또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과정에서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관련해서는 쇼핑, 문화,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을 요청했다. 윤석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광주 시대 준비위원회’가 7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현안 검토보고회를 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이 보고서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열 정부의 공약인 점을 고려해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시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 주도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기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이달이나 다음 달 중 사업자 측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고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설계 공모를 시행하는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2005년 시작돼 아직도 진행되지 못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기존 사업자와 소송 상황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답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해법으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한 ‘레저 파크 G 랜드’ 등 형태로 정부의 지역 공약사업을 어등산에 유치하거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

안했다. 군 공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법률 제·개정, 대구 공항 이전 방식을 차용한 ‘광주형 공모안’ 마련 등 투 트랙 전략을 구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솔라시도에 2조 민선 8기 1호 투자 유치

수소발전발전소·첨단 스마트팜 등 융복합 산업 구축 협약식

전남도가 7일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융복합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투자 유치 협약을 했다.

전남도는 이날 도청 VIP실에서 ㈜대우건설, ㈜엠디엠자산운용의 합작법인 ㈜전남인프라에너지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

민선 8기 1호 결재이자 공약인 ‘첨단-전략산업 30조원 투자 유치’의 일환이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명현관 해남군수, 임상업 ㈜전남인프라에너지 대표, 임상업 ㈜엠디엠자산운용 박재용 대표, 조승일 ㈜대우건설 본부장이 참석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이후 투자금액이 가장 큰 이 사업은 ㈜대우건설의 기술력과 ㈜엠디엠자산운

용의 자금력을 결합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전남인프라에너지는 오는 2026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20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최첨단 스마트팜 등 융복합 시설을 구축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2026년까지 사업 기간 월평균 500여 명의 건설인력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20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33만 세대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저장하지 않고 즉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폭발과 화재 위험성이 없어 안전하다. 미세먼지 정화 효과도 탁월해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 800MW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66만㎡ 규모 스마트팜 시설은 수소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온수 등을 스마트팜 시설 내 작물 생육과 난방에 사용함으로써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주민 소득증대와 스마트 영농에 적합한 청년층 인구 유입은 물론, 조성 예정인 유럽마을 등과 연계해 기업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토대로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하고 전남을 세계 1등 수소산업 메카로 우뚝 세우겠다”며 “향후 스마트팜 운영 시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3·1 독립운동가 80명 발굴 서훈 신청

광역지자체 직접 발굴 첫 사례 기존 서훈자 267명의 30% 달해

전남도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나 기록이 현존하지 않고 기록이 있어도 자료 부족으로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3·1운동 독립운동가 80명을 발굴, 정부에 서훈을 신청했다. 광역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것은 전국 첫 사례다.

전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동안 일제 강점기 문헌, 범죄인 명부, 독립운동 기록, 제적부 등을 조사해 128명의 미서훈자를 발굴했다. 그 중 이번에는 판결문 등 거증자료를 확보된 80명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자료 확보 후 추가 신청할 계획이

다. 시·군별로 해남 15명, 영암 9명, 목포·순천·강진 각 8명, 무안 6명, 담양과 영광 5명, 광양 4명, 나주와 완도 각 3명, 장성 2명, 곡성·구례·함평·진도 각 1명씩이다.

전남지역에는 독립운동에 함께한 분들은 많으나 실제 서훈을 받은 분은 그리 많지 않다. 전국 3·1운동 서훈자 5991명 중 전남은 267명으로 4.55%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80명에 대한 서훈 신청은 기존 전남도 서훈자의 30%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국가가 주도해 대규모로 발굴하거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광역지자체가 직접 발굴하는 경우는 전남이 처음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국비사업 해마다 증가

올 2000억 이상 유치 기대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유치한 국비 사업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7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연간 국비 유치

액수는 2015~2019년 연평균 400억원대를 기록했다가 2020년 1323억원, 지난해 1895억원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산단형 지능 분산 에너지 기업 공동연구 활용센터 구축(211억원), 인공지능(AI) 가전

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169억원) 등 상반기에만 735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하반기에 국민의료 AI 서비스와 산업생태계 구축(428억원) 등 26개 사업 유치가 나섰으며 확실시되는 일부 사업을 고려하면 지난해 실적을 초과해 2천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광주테크노파크는 전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취임식 생략 공식 업무 돌입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7일 취임했다.

김 부시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제19대 국회의원(비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사무국장, 청와대 정부·청년 비서관 등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광주시는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 소속 활동 경력은 군 공항 이전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강조했다.

문화경제부시장은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문화관광 등 분야를 총괄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임대 및 특판 안내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임대 안내			
층	호실	임대면적	호별 위치도
1	101호	27평	101, 102, 103
	102호	40평	
	103호	51평	
2	201호	27평	201, 202, 203, 204
	202호	28평	
	203호	43평	
	204호	82평	
3	301호	금남몰라이트치과	301, 302, 303
	302호	72평	
	303호	83평	
4	401호	103평	401, 402, 403
	402호	72평	
	403호	83평	
5	501호	MG 문화센터 (갤러리 대관 환영)	501, 502
	502호	MG 골프클럽 (회원 대 모집)	

사옥개관기념 무공무진 특판

3% 정기에탁금 (1년)
(300억원 한도)

MG골프클럽 특가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조건 문의 (영업지원팀)
* 탁기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할인 금액 2만원)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